

환자·보호자 마음 위로한 ‘음악과 시가 있는 힐링 음악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음악과 시를 통한 위로와 휴식의 시간을 선사했다. 지난 2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Healing Music Concert’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뮤직 아카데미가 주관했다.

이번 공연에는 클래식 연주와 시 낭송이 어우러졌다.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은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직접 낭송했으며, 정호 스님과 진명 스님의 첼로 연주를 비롯해 병원 의료진과 대학 구성원들이 바이올린과 바순 연주에 참여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는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하며 따뜻한 박수와 호응을 보냈다. 공연 마지막에는 돈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이 참석자들의 건강과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몽골 전 보건부 장관 친부렌,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방문

몽골 전 보건부 장관 친부렌(T. Munkhsaikhan Chinzorig) 전 장관 일행이 8월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을 방문해 몽골 전통의학 발전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몽골이 추진 중인 전통의학 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협력 가능성을 비롯해 연구·교육, 의료진 교류 및 임상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탕전실과 한방병동, 한방 외래진료시설 등을 견학하며 한약 조제·관리 과정과 입원·외래 진료체계 등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의 한의의료 시스템을 살펴봤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몽골 전통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26 안전문화 캠페인’ 성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함께 실천하는 안전, 모두가 안심하는 병원’을 주제로 「2026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피실, 감염관리실, 항생제 소위원회, 총무팀 안전보건파트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환자안전·감염안전·약물안전·직원안전을 아우르며 병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첫날 발대식에서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안전한 병원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 기간에는 Speak Up 캠페인, 환자안전 퀴즈와 체험 프로그램, 감염예방·약물안전 교육, 직원 참여 이벤트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수 부서와 교직원에 대한 시상도 마련됐다.

백용해 병원장은 “안전은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정착시켜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교직원이 안전하게 일하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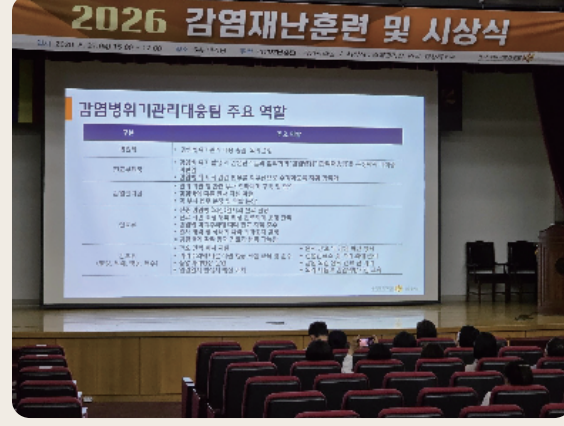


2026 감염재난훈련 실시

지난 8월 27일 ‘2026년도 감염재난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와 병상 전환 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 공중보건위기 발생에 따른 국가기관의 요청 상황을 가정해, 감염병위기관리대응팀 운영계획에 따라 일주일 이내 3층 외과계중환자실2를 긴급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각 부서별 대응 준비사항과 감염병 환자 입원 수용을 위한 사전 준비체계를 점검하며 실제 상황에서의 협업과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감염재난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임종기 의사결정 및 암성통증관리 교육 실시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8월 20일 4층 중강당에서 원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암성통증관리」와 「연명의료법 시대에 임종기 의사결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혈액종양내과 박권오 교수가 강의를 맡았으며, 약 30 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암성통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통증관리 방법을 비롯해 연명의료법에 따른 임종기 환자의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 존중의 중요성을 다뤘다. 특히 환자·가족·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는 의료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달용 연명의료윤리위원장은 “이번 교육이 연명의료와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료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1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대회’ 의료지원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 1일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1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대회’에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지원은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지원 체계를 운영했다. 특히 고령 참가자가 많은 게이트볼대회의 특성을 고려해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불교계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과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지원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불경 속 고이 접어 전한 지폐 한 장 한 장, 정진숙 님,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 발전기금 전달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정진숙 님이 지난 8월 18일 뜻깊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정진숙 님이 평소 작은 돈이 생길 때마다 불경 속에 차곡차곡 끼워 놓은 지폐에는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따뜻한 마음과 자비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경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이를 손수 실천하듯 경전 사이에 지폐를 고이 접어 넣었던 그 손길은 주변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었다. 이번에 전달된 소중한 기부금은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과 지원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597명

기간 ▶ 2026. 8. 1. ~ 8. 31.

인묵스님	100,000,000
김진문 님	10,800,000
원묵스님	10,800,000
현성스님	10,800,000
박순금 님	10,050,000
능관스님	5,400,000
성전스님	5,400,000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님	5,000,000
종호스님	5,000,000
박성연 님	3,240,000
故 최수금 님	3,000,000
정진숙 님	1,223,000
백용해 님	1,110,000
최상근 님	1,090,000
김윤영 님	1,080,000
김윤채 님	1,080,000
김장수 님	1,080,000
김진영 님	1,080,000
동준스님	1,080,000

박금숙 님	1,080,000
故 배정만 님	1,080,000
성미영 님	1,080,000
성업스님	1,080,000
성열삼 님	1,080,000
성혜영 님	1,080,000
수범스님	1,080,000
용훈스님	1,080,000
정문영 님	1,080,000
정산꽃화원	1,080,000
정윤지 님	1,080,000
정제원 님	1,080,000
정호연 님	1,080,000
증용스님	1,080,000
최승임 님	1,080,000
최재호 님	1,080,000
최종윤 님	1,080,000
현진스님	1,080,000

외 560명

(단위 : 원)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문의 ▶ 대외협력팀 031-961-9000